

시킬수도 없지만 그걸보면 Quantitive System 은 아닌것 같아요. 글字 하나 「아」字 하나를 쓴다고 意味가 나오는 것 아니고 하나의 意味를 가질려면 鄭教授가 조사한 거와 같이 「2音節」乃至「3音節」거기다 하나의 文章을 구성하려면 吐가 붙고 語尾가 붙으니까 머 相當히 많거든요.

그렇게 많은 單語들이 모여야 우리 들에게 어느 映像을 주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字數를 Scan 한다는 것은 그런 點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의 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Tone, accent 같은 것 事實 오늘날 우리 말에도 accent 가 있긴 있답디다요. accent 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맞춤法, 有聲音, 無聲音이라든지 破裂音 또는 有氣音 등,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要컨대 問題는 어떻게 보다더 奏效的인 것이냐 이것을 찾아야될 것 같아요. 그런데 現在國語를 보면 Metri 에 영향될 만큼 accent 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투리 빼놓고). 그래서 Accentual System 을 잡을 수도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15세기 當時에 보면 表記를 보아도 傍點하나 또는 두개 등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이 基準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봤는데 그것으로 一定한 法則이 안나와지더군요. 가령 傍點은 두個 붙인건 비록 한字가 나온다 해도 두音節로 봐서 하나 나오면 석點을 준다. 이런 式으로 계산해봐도요.

## 龍飛御天歌의 Genre

— 叙事詩로서의 龍飛御天歌 —

張 德 順

※ 本發表의 內容은 錄音事情으로 因하여 要旨로써 代한다.

### 1. <龍歌>를 叙事詩로서 볼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이 方面의 學者들은 <龍歌>를 「樂章」(가람, 陶南), 「樂歌」(金思燁), 「訟詠歌의 一種」(李明善) 등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音樂을 前提로한 用語들이다. 적어도 <龍歌>를 文學的立場에서 다룬다면은 文學의 樣式的 方法을 援用해야 하겠는데 그렇다면 <龍歌>는 叙事詩的 樣式으로 다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까지 <龍歌>는 우리 學界에서 語學的 分野에서는 가장 貴重한 資料로서 研究의 對象이 되어 왔으나, 文學적으로 이를 깊이 考究한 일은 별로 없다. 金思燁氏가 「李朝時代의 歌謠研究」에서 比較的 廣範圍하게 考察하고 그 文學的 價値를 批評한 結論에서,

龍歌는 太祖 太宗朝에 이루어진 모든 頌禱歌를 集大成한 것이면서 詞華의 豊富함, 資料의 多岐, 多彩, 規格이 新境地를 티워 嶄新함, 修辭上 間然함이 없는 格式을 具備하여 있는등 宮廷文學의 巨璧이며 실로 歌謠界의 最高峰에 位置한 名作이다. 참으로 이 一篇이야말로 金剛山을 빼았기는 일이 있어도 내어놓을 수 없는 우리 民族의 永遠한 寶典인 것이다(p. 193)

라고 極口 讚揚해 마지 않았으나, 餘他の 學者들은 거의 <龍歌>의 文學的價値에 대해서는 극히 冷淡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金思燁氏도 <龍

歌>의 叙事詩의 性格에 대해서는 言及이 없었음은 실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寡聞한 나로서는 그래도 <龍歌>를 叙事詩의 關心으로 考察하려는 者는 李明善이 있었음을 기억할 뿐이다. 그의 著書 「朝鮮文學史」에서 이 <龍歌>가 文學적으로 큰 價値가 있는 大傑作이 될 수 없는 理由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叙事詩로서의 確固한 現實的 背景을 갖지 못하였다는 事實에서 論證할 수 있는 것이다. 叙事詩는 社會와 個人과의 사이에 矛盾이 없는 英雄的인 時代에 단 本格的인 大傑作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世宗때에는 勿論이고, 龍飛御天歌가 內容으로 한, 高麗의 滅亡, 李朝의 建國 前後를 가지고 보더라도 多少의 戰爭은 없는 바 아니나, 英雄과 英雄, 集團과 集團과의 勇猛 果敢한 本格的인 戰爭은 한번도 없었다.(中略) 事實自體가 이미 英雄的 要素가 稀薄한데다가, 그 위에 鄭麟趾等의 阿諛만을 能事로 하는 俗吏들의 손으로 꾸미어졌으니, 어찌 本格的인 叙事詩가 될 수 있으랴!

라고 하여 <龍歌>는 本格的인 叙事詩는 못되고 「創業頌詠歌」의 一種이라고 規定하였다. 그러나 本格的인 叙事詩가 못된다는 것은 <龍歌>의 叙事詩의 性格의 一片이 있음을 示唆한 것임엔 틀림 없다.(以下 紙面關係로 要旨만抄錄.)

## 2. 叙事詩란 어떤 것인가? (略)

### 3. <龍歌>의 叙事詩의 霧圍氣.

- ① 歷史와 說話를 背景으로 했다는 점.
- ② 多數의 英雄이 登場하고, 또 그 英雄들이, 李太祖라는 中心人物의 活躍이 浮彫되어 있다는 점.
- ③ 英雄에 隨伴하는 條件——例컨대, 駿馬, 武器, 武勳이 華麗하게 장식되었다는 것.
- ④ 어디까지나 事件의 叙述이지 主情的인 情緒의 詠嘆이 아닌 점.

### 4. <龍歌>의 非叙事詩의 要素

- ① 韻文으로 된 原文만으로는 解釋이 不可能하므로 散文으로된 漢文解說까지 活用해야 全體의 事件을 理解할 수 있다.
- ② 始終一貫한 스토오리가 없이 散漫하고 斷片的인 事件의 連續이라는 것.
- ③ 叙事詩의 特徵인 英雄의 憤怒, 抗議, 葛藤, 憎惡와 같은 場面이 극히 微弱하여 緊迫感이 喪失되었다.
- ④ 主人公인 李太祖의 性格이 革命的 英雄으로는 不統一로 一貫하고 오히려 副主人公格인 太宗(芳遠)이 훨씬 革命的으로 浮彫되었다는 것.
- ⑤ 人爲的이고, 造作的인 英雄화가 너무도 甚하다.

5. <龍歌>는 叙事詩이 가는 하나, 本格的이 아닌, 畸形的이오, 破格的인 叙事詩로 밖에 볼 수 없다. (略)

6. <龍歌>에 등장하는 重要 人物들의 活動과 그 章數. (資料)

① 中心人物인 李太祖(李成桂)의 重要事業,

戰爭	紅巾賊擊退	33章—→40章
	奇齊因帖祝降服	42章
	納哈出降服	35, 36, 38, 89章
	倭寇擊退	38—→42, 47—→52. 58—→62章, 89章
	女眞族과의 싸움	38—→41章
武勇	善射(弓)	27, 35, 37, 43~46, 63~65, 88
	乘馬	31, 44, 47~48, 70, 86
	擊毬	44
	友愛·崇儒人·愛部下等	76, 80~82, 54, 66
	回軍, 廢禡王	9, 11, 12
奇蹟	薄氷渡河	10, 30, 夢金尺 13

② 太宗(芳遠)의 活躍

戰爭	鄭道傳亂	98
	芳幹亂	99
	回軍의 活躍	9
孝誠		91~94
義理		96, 99, 105, 106
威胤		28, 90
奇蹟(登極前兆, 現龍)		100

③ 四代祖의 活躍

穆祖	全州—三陟—德源—幹東(慶興)	3, 17, 18
翼祖		4, 5, 19~25
度祖		7, 21~25
桓祖		8, 26

④ 其他의 Extra

女人(太宗妃)		98, 109
崔瑩		9, 65, 66
鄭夢周		9, 106
李豆蘭		50, 57, 86
李穡		71, 82

鄭道傳 98

芳幹 99

(以上人物들은 그 重要的 것만을 抄記했고 中國人物은 다루지 않았다).

7. 英雄 李成桂와 李芳遠의 人間像 (略)

8. 結 語

李奎報作 英雄叙事詩〈東明王〉과의 比較. 우리 叙事詩의 特徵.  
叙事詩로서의 〈龍歌〉의 評價.

(註) 本 發表는 陶南 趙潤濟博士回甲論文集에 論文化되었음.

### 龍飛御天歌의 文學的 價值評價

— 새로운 評價基準을 摸索하면서 —

鄭 炳 昱

오늘 저에게 주어진 課題를 말씀드리기 前에 順序가 약간 뒤집어 졌습니다  
마는 이번 龍歌의 綜合的인 檢討에 있어서 文學的인 面에 대한 綜合的인 報告  
를 잠시 말씀드리고서, 저의 主題로 넘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11page에 대충 이번 Symposium에서 文學的인 面에서 어떠한 問題  
를 다룰수 있겠는가를 간단하게 整理를 해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  
다. 지금까지 龍歌하면 누구나 다 語學面에 있어서 重要的 資料로서 다루어왔  
던 것이요 文學的인 面에 있어서는 그렇게 語學部門에서 처럼 활발하게 이것  
을 檢討해 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重要的 國文學史, 또는 國文學의 研究業績에서 대충 龍歌에 關係  
된 것을 추려 볼것 같으면,

첫째로 形態成立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람 李秉岐 教授의 「國文學全史」中에서  
龍歌項目에 四句二節形으로 된 民謠體로부터 龍歌의 形式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趙潤濟博士의 「韓國文學史」의 六章 3節 〈樂章의 始製〉라는  
項目에서 보면 龍歌의 形式은 中國古詩體를 模倣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金思燁教授의 「李朝時代의 歌謠研究」中에서 龍歌의 形式考의 項目에 보  
면 龍歌의 形態는 麗謠의 殘形과 李朝의 新形을 綜合한 形態이라고 되어있습  
니다.

그래서 이번 Symposium에서는 主로 詩歌의 形態를 Rhythm의 形成方法을  
中心으로하여 그 成立과 起源같은 것을 或是 觀察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